내화이바뀌는전남경생시대



5월10일 월요임

보도자료



실국

농축산식품국

과장

손명도

담당

김기평

286-6220

롯데제과(주), 전남도에 과자 1천 상자 기증

- 농촌어린이 보육시설 35곳에 전달, 기업의 따뜻한 이웃사랑 실천 돋보여 -

전남도는 10일 "롯데제과(주)(대표이사 민명기)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통해 기증한 과자 1,000상자를 도내 농촌지역 보육시설 어린이들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증품은 롯데제과(주)가 가정의 달을 맞아 전남 농어촌지역 어린이들을 위해 준비한 비스킷과 스낵 등 과자류 1,000상자로서 기업의 이윤을 이웃과 함께하겠다는 따뜻한 마음에서 마련됐다.

전남도청에서 이뤄진 전달식에는 롯데제과(주) 김성민 준법경영담당 매니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조태용 운영본부장, 전남도 소영호 농축산식품국장 등이 참석했다.

전남도는 기증받은 제품을 도내 농촌어린이 보육시설 35곳에 전달했다.

이 날 전달식에 참석한 롯데제과(주) 김성민 매니저는 "코로나19로 어려운 농촌의 어린이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롯데제과 전 직원이 응원 하겠다"고 말했다.

소영호 농축산식품국장은 "미래의 희망인 어린이들에게 이웃사랑의 실천모습을 보여주신 롯데제과(주)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깊이 감사 드린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역사회 환원사업을 전남도와 함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제과(주)는 2013년부터 농어촌지역 아이들이 방과 후에도 안전하게 공부하고 놀 수 있도록 빼빼로 판매 수익금으로 '롯데제과 스위트홈'을 건립해 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전국 8개 스위트홈 중 전남에는 2017년 영광군에 제5

호점(알록달록 지역아동센터), 2020년 신안군 임자도에 제8호점(천사아이 지역 아동센터)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전달식 사진 있음"